

되살림 Vol.14

도시를 보는 새로운 관점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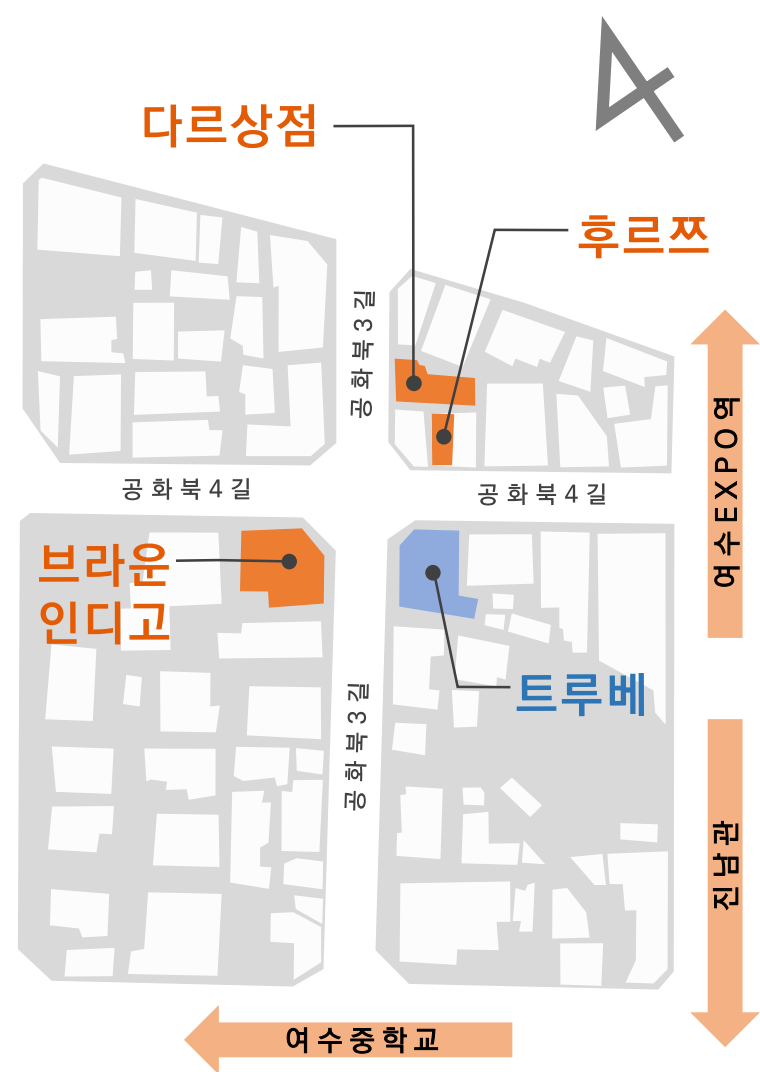
발행일 2020.09.29

백년동행
여수시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들에게 물어보다.

공화동 길거리를 걷다 보면 달려있지 않는 간판들, 텅텅 빈 가게, 물건은 있으나 문이 열지 않는 가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관광객들의 게스트하우스와 숙박 방문으로만 발길이 조금 달을 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던 동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가는 골목길에 자신의 가게를 오픈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동네의 1기 젊은 창업가들로서 공청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Q. 각자 가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르 안녕하세요. 저희 **다르상점**은 차박 및 감성캠핑 용품 대여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취급하는 상점입니다. 여수여행 또는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구입하기 어려운 다양한 캠핑용품과 피크닉세트 구성을 취향껏 만들어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운 **브라운 인디고**는 수입 식료품 및 와인을 판매하는 보틀 샵입니다. 와인과 치즈는 어렵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편견을 깨고, 다양한 식재료와 먹는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공간은 SNS를 통해 예약 후, 원하는 음식과 함께 와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후르프 저희 **후르프**는(fruitz) fruit + hz 헤르프라는 뜻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의 과일 주파수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과일가게 입니다. 알록달록한 과일의 진열로 눈이 즐거운 공간입니다. 그때마다 맛있고 싱싱한 과일을 사용하여 날개 과일, 과일 컵, 착즙 주스, 과일 그릭 요거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마을활동가 일상

9/16 문수지구
주민제안 공모사업 소개 및 홍보



9/22 문수지구
집수리 공사로 인한 문제점 및 민원 파악



9/14 종화지구
코로나19 2.5단계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회의



9/17 종화지구
주민제안 공모사업 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SNS



연락처 : 061-659-5918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00-7(종화동) 2층

Q. 세 분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브라운 공화동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역전과 가깝고 관광지와 숙소들이 몰려있는 너무나도 좋은 위치인데 이 동네가 쇠퇴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서울 가면 망리단길이나 성수동을 놀러 가듯이 놓고 먹고, 볼거리 있는 가게들이 여수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직접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리가 활성화된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젊은 청년 사업가들을 모집합니다. 여기서 동시에 시작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라고 글을 올렸는데 총 14분 정도 연락이 왔고 그중에서 정말 확실하게 해보자 한 친구들이 이렇게 저희 3명이었어요.

후르쯔 저희가 각자 매입과 매출은 본인이 관리하고 운영 하지만 같이 모여있음으로 외롭지 않게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가족 같은 느낌도 있고, 서로 같이 도와주는 셋도 없는 동업자가 되었어요.

Q. 앞으로 예비 창업가들은 어떻게 모집할 예정인가요?

다르 저희가 1기로 세 가게를 동시다발적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아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기수별로 시작하고 싶어요. 1기 세 가게들과 트루베 카페까지 해서 당일 구입한 영수증 할인 이벤트를 했더니 손님들이 모든 가게를 하나의 코스처럼 다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카페만 왔다가 가는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걸어 다니면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운 1기 모집할 때는 많은 문의를 해주셨지만 빈 점포가 없고 매입이 어려워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점을 보완해서 2기를 모집할 때는 상권분석과 운영사항 정리 후 준비된 상태로 4~5명을 생각하고 2주 정도 후에 공고 예정입니다. 저희는 공사하고 고민하던 시간이 거의 4개월이 걸렸었는데 오픈을 최소 3개월을 잡아도 올해 말이라 그전에 실질적으로 오픈이 가능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공화동에 수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가까운 상가끼리 서로 도와주며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화동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 받았듯이 저희도 2기 예비 창업가들을 따뜻함으로 함께 돕고 싶어요.”

Q. 가게 문을 열 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공화동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르 처음에 위치적으로 인식이 너무 안 좋았던 공화동 골목에 장사를 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트루베 카페 말고는 아무런 상권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을뿐더러, 저희조차 확신이 없었어요. 주변 어른들의 반대가 심했고 ‘너 그렇게 해서 얼마나 하겠냐’는 등 자존감 깎이는 말들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들어오기 전에 시장조사를 하고 유동인구를 보니 거의 여행객이고 대부분 젊은 세대가 아예 방법이 없진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라운 저희는 도시재생이 되는 이 공화북길 4거리를 중심으로 각자 개성이 있는 젊은 친구들의 가게를 차근차근 채워서 유동인구를 늘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희 가게 앞에 치킨 집이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보시면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저희는 아니까 상관 없지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수 사람들도 이 동네에 오면 괜히 인식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오길 꺼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무엇보다도 공화동의 이미지 개선에 대한 목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터치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어서 계속 들어오는 상가로 인해 밝은 빛이 생기고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쓰레기통과 가로등을 설치하여 도로정비가 된다면 들어오는 인구가 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는 동네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소주나 막걸리 한 병으로 나눠드시던 동네분들이 이제 와인도 드시는 변화를 가져왔어요 (하하하)

Q. 앞으로의 궁극적 목표가 있나요?

후르쯔 청년들이 하나 둘 모여 활성화된 공화동 거리가 여수의 대명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초기에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지만, 쇠퇴된 동네를 살린 본보기가 되는 좋은 사례가 되어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시작으로 주변 어르신들과 여수시민들, 관광객들, 청년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제 21기 도시재생대학 입문반 열림식

강의 커리큘럼 및 운영계획 안내 / 여수시 문화원 3층

9월 22일, 제21기 여수시 도시재생대학 입문반이 개설되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장소 중심의 재생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여수시 맞춤형 운영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입문반은 6강 동안 진행되며 3강 동안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이론교육”이 진행되고 2강 동안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자원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마을 지도에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와 함께 조사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합니다.

마을 지도 만들기 과정 속에서 지역 역사, 문화, 산업 등 기록화 작업을 통해 지역자원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화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수강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1강 도시재생 계획수립과 사업발굴

좋은계획 만들기, 도시재생이란? /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일영

도시재생이란 무엇인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과 사업 발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가치와 목적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일시적 방법보다 지역자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게 문제 원인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SWOT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전략 중 적절한 것을 찾고 결국 남는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가져야 한다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 및 가나자와 계획 수립 사례로 기록을 통한 마을계획 만들기에 대해 설명 듣고 좋은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견수렴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 _ 공화동 바이브



아로마 체험 프로그램 4회차 / 여수시 공화동 공화북 4길 8

9월 17일, 공화동 주민분들과 김지혜 강사님과 함께 공화동 바이브에서 케이크 디자인 캔들과 시나몬 아로마 캔들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케이크 디자인 캔들을 만드는데 달달한 생크림을 표현하기 위해 왁스를 녹여서 향을 첨가하였고 귀여운 산딸기 모양은 녹인 왁스에 빨간 염료를 넣어 딸기 몰드에 부어

완성하였습니다. 시나몬 아로마 캔들은 유리 용기에 심지를 고정하고 왁스를 조금만 미리 붓고 굳힌 후 벌레 퇴치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시나몬 스틱을 장식 후 왁스를 채워 완성했습니다. 주민분들은 보기만 해도 달달하고 예쁜 캔들을 쓰기 아까워 하시고 만드는 내내 즐거워하셨습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 _ 종화지구 주민협의체



원에 체험 프로그램 5회차 / 여수시 종화2길 18

지난 4회차 수업에서는 게릴라 가드닝을 주제로 조경 설계에 대한 기초 이론 교육을 들었습니다. 게릴라 가드닝이란 버려졌거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을 아름답게 가꿔서 방치된 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친환경 활동입니다. 종화지구의 자투리땅을 찾아 사전 답사를 하고 정원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9월 21일, 5회차 수업에서는 디자인을 했던 도면을 토대로 대상지에 식물들을 배치하여 식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식물을 심기 위해 종화동 주민분들과 함께 땅을 파고 밭을 갈아 정원을 완성 하였습니다. 종화지구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